



세월호 참사 1000일... 진실을 인양하라
지난 7일 오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제2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편지를 달은 노란종이배로 리본모양을 만들고 있다. (왼쪽) 청소년 문화제 이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월호 1000일 9차 전북도 민총궐기' 중 '박근혜는 내려오라 세월호는 올라오라'라는 공이 등장하고 있다.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성 두고 갈등 심화

도 “새만금 개발방침 부적합” VS 개발청 “조선업 불황 타개책”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방향과 맞지 않고 전북에 이익이 안된다면서 사업에 불참기로 했다.

특히 송하진 지사와 이병국 개발청장의 대립양상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와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 체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에 대한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 개발청과 신경전을 펼쳐 온 전북도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큰 틀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는 이날 군산에서 예정돼 있는 합의각서 체결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는 이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새만금을 글로벌 평판도시로 만들기 위

한 30년의 노력이 보람도 없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새만금 개발 방향과도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북에 이익이 안돼 반대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다. 이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앞두고 새만금개발청이 사전에 도와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등 이른바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인 새만금에 단순 전력생산 시설인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 미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새만금 내부매입에 필요한 주변 준설도 확보는 물론 친환경 수상교통망 체계 도입,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조선업 불황타개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은 군산 조선소의 존치와 수주 물량 배정"이라며 "풍력발전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 경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설 이후에는 단순 전력 생산 시설로, 중장기 측면에서 볼 때 조선업 불황 타개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될 지역이 새만금의 최적의 입지지역인 만큼 체계적이고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추진하더라도 새만금 지역 내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투자유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상풍력 승인 이후에 유사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대책 또한 사전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은 미래에셋 등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 전액 민자로 출자해 추진한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90.2M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4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4월 착공, 오는 201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11월 지부지한 새만금 사업과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등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이 미진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경질'까지 언급하며 새만금개발청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여기에 전북도의회와 도내 국회의원들까지 무관심과 무능을 들어 새만금개발청장 교체론에 가세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제9차 전북도민 총궐기

박 퇴진·세월호 인양 등 외쳐
노란풍선 퍼포먼스 등 이어가
세월호 1000일 청소년문화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올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지난 7일 전주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복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제9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경찰 추산 700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주말 밤을 밝혔다.

주최 측과 시민은 세월호 참사 1천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구호를 외

쳤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인 '은화아빠' 조남성 씨도 집회에 참석해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다.

전북시국회의는 세월호가 그려진 노란색 큰 풍선을 시민들이 손으로 주고받는 퍼포먼스와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에 맞춘 율동 등 대부분 프로그램을 세월호와 관련한 내용으로 채웠다.

이날 오후 5시에 시작된 총궐기 대회는 오후 7시 20분께 마무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제2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제'가 열렸다. /김민지 기자



전주시, 글로벌전주 서포터즈 모집

전주시가 올해를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리려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외국인용 페이스북 영문 홈페이지 '전주, 올 어바웃 코리아(Jeonju, All about Korea)'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에 소개할 콘텐츠에 대한 취재와 외국어통번역, 동영상 제작 등에 함께 참여할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전주시 해외홍보 콘텐츠 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 관련 콘텐츠 포스팅 및 번역, 홍보동영상 제작 협조 및 SNS홍보, 피드백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내국인용 페이스북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외국인용 영문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전주민의 매력을 소개할 특색 있는 콘텐츠로 채울 예정이다.

이는 페이스북 등 SNS사용자의 해외연령층 대부분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10대~30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취향과 흥미에 맞춰 한국문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동영상과 전주시

의 주요 소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외국인용 영문 페이스북 타이틀인 '전주, 올 어바웃 코리아'의 의미처럼 전주가 한국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전주에 관한 정책홍보가 아닌 한국을 주제로 한 포괄적인 콘텐츠를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고편 홍보동영상을 직접 제작했으며, 앞으로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함께하는 한식요리 프로그램인 '맛있는 전주' Jeonjuicious(Jeonju+Delicious), 한국의 문화를 엿보는 '한국여보기'(Peep inside Korea),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인터뷰하는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SNS 및 해외홍보에 관심 있는 자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지치행정과 국제교류팀 (063-281-2255)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영어 페이스북(www.facebook.com/globaljeonj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근엄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청정 부안의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명품쌀 '천년의 숨씨' 병잎김 부안빵주 곰소젓갈 병잎고등어

어화세상 벗님네야 북받으려 마실가세

부안 마실축제 제5회

2017.5.4(목)~5.6(토)
부안마실축제에 오시면 오복이 가득합니다